

# 뚝뚝한 태교는 행복을 타고~~

글 \_ 김희정 · tladn2007@gmail.com



도대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걸까? 드르렁 드르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미모양을 뒤로하고 어두컴컴한 새벽길을 운전해 연구원에 도착. 어제 다 마치지 못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고 나면 먼동이 터오고 동료 직원들이 하나 둘 연구소에 들어온다. 팀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연구해 몰두하다 보면 벌써 퇴근시간. 막바지에 달한 연구를 마무리하느라 대부분의 팀원들은 야근을 해야 하지만 뚝뚝씨 만은 그럴 수가 없다. 다행히 새벽부터 일을 해치운지라 칼퇴근이 가능하다. 6시 땡 치는 소리와 함께 썩~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뚝뚝씨. 이제부터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 시작된다.

“미모? 오늘은 어떤 요리로 대령할까? 뚝뚝2세 컨디션은 어때? 입덧은? 잠은 충분히 잔거야? 지금이 뚝뚝2세의 세포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때니까 단백질 공급이 핵심이라는 건 알지? 닭 가슴살 스테이크하고 유자파이... 알았어. 내가 금방 장 봐서 들어갈게. 사랑 사랑 사랑해~~ 쫓옥!”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1972년생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광속으로 장을 본 뚝뚝씨. 미모양의 시장기가 폭발하기 전에 저녁상을 차려야 한다는 일념 하에 슈퍼맨을 능가하는 속도로 호텔 레스토랑 저리가라 할 만한 근사한 만찬을 차려낸다.



“헉헉... 뚝뚝2세... 헉헉... 아직 배고프다고 난동 부리진 않는 거지?... 헉헉...”

“지금 막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와... 근사하다. 뚝뚝1세 정말 멋져. 입덧이 싹 달아났어요. 상으로 뽀뽀 한 번! 볼때기 대령하세요.”

“정말, 정말, 정말?”  
 “쫓!”

차마 눈뜨고는 보기 힘든 닭살스런 저녁식사를 마쳤건만, 뚝뚝씨의 바쁜 일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 모차르트 교향곡을 은은하게 틀어놓고 미모양의 작은 둔덕처럼 살짝 올라가기 시작한 배를 쓰다듬으며 본격적인 태교를 시작하는 것. 누가 푹푹씨 아니랄까봐 푹푹2세와의 대화도 푹푹하기 그지없다.



“푹푹2세야, 이제 지문도 다 형성됐구나. 네가 아주 작을 때 매끈하게 네 손을 싸고 있던 ‘볼라패드(Volar Pad)’는 10주째가 되면서 성장을 멈췄고 네 피부에 흡수되면서 융선을 만들었단다. 이제 네 몸에 작용하는 불특정한 모든 힘이 지문의 모양을 다 결정했겠지. 너에게 가장 좋은 지문을 주기 위해 지금 엄마 아빠는 몸도 마음도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다. 푹푹2세 알겠니?”

푹푹2세의 어머니로서, 푹푹씨 못지않은 과학적 상식으로 하루가 다르게 무장하고 있는 미모양도 한 마디 거든다.

“푹푹2세야, 엄마와 너는 태반이라는 줄로 연결이 돼 있단다. 반은 엄마에게서 반은 너에게서 나온 물질로 돼 있지. 엄마 몸속에 있지

만 유전적인 구성은 엄마와 전혀 다른 독립기관이야.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자신이 아닌 것은 무조건 공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반 역시 공격을 받아야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단다. 태반이 공격받지 않는 이유는 좀 징그럽지만 기생충의 생존방법과 비슷해. 기생충 세포의 표면에는 포스포콜린이라는 분자가 있어서 사람의 면역체계를 속여 마치 기생충을 자신의 일부처럼 받아들여 하게 하거든. 덕분에 기생충은 사람의 몸속을 돌아다니면서도 면역체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뉴트로키닌-B(NKB)을 비롯해 태반에서 합성되는 대부분의 단백질에도 포스포콜린 분자가 달려있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끈이 엄마 몸에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덕에 너에게 엄마의 모든 것을 전해줄 수 있단니 감사하는 마음이란다.”

미모양의 지적인 태교에 푹푹씨의 눈에선 사랑이 푹푹푹 떨어져 넘친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서로의 장점을 존경하고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모아 2세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비로소 행복의 근원을 알게 된 푹푹씨, 감격에 겨워 눈물이 다 날 지경이다.

“푹푹2세야... 생명의 탄생은 희생으로 시작하는 거란다. 너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네가 자랄수록 하나 둘 사라져 버려. 네 손이 몸통에서 주걱모양으로 또 손가락 모양을 갖추어 가는 동안 필요 없는 곳에 있던 세포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단다. 세포 각각의 입장에서는 왜 살고 싶지 않겠니. 그렇지만 자기가 죽어야 푹푹2세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지. 죽음이 예정돼 있다고 해서 이런 과정은 PCD(Programed Cell Death)라고 불린단다.”

어느새 미모양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우리 푹푹2세... 너는 세포의 희생으로 모습을 만들고, 자라고, 세상에 나오게 될테고 엄마 아빠의 사랑과 희생으로 어른이 될테고 또 누군가에게 엄마 아빠에게 받은 것 보다 훨씬 큰 사랑과 희생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거야... 푹푹2세야, 넌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가장 행복하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그걸 잊지 말렴. 사랑한다 푹푹2세...”

푹푹씨와 미모양. 촉촉이 젖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본다. 푹푹씨의 눈엔 미모가 미모양의 눈엔 푹푹씨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엔 이미 푹푹2세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가득 했다. 



〈푹푹씨의 박학대식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